

실용음악 전공자를 위한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 연구

신혜승^{1*}
¹여주대학 실용음악과

The Study of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for Applied Music-Major Students

Hye-Seung Shin^{1*}

¹Department of Popular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논문은 실용음악 전공자의 시창청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용음악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한 내부 환경 및 기존 교재에 관한 분석이 논문의 출발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창 부분과 청음 부분의 통합 학습 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악곡의 활용, 리듬과 화성의 즉흥 표현을 위한 연습 방법 등이 프로그램 개발 내용의 핵심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prepared to suggest how to develop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for applied music-major students. Starting from analysing the internal environment and currently existing materials, based on the questions collected for applied music-major students, integrated program for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was considered. The use of the various kinds of classical and popular music literature, the examples of improvisation in rhythm and harmony, based on the music theories, are focal points of this program recommended here with.

Key Words : Sight-Singing, Ear-Training, Integrated Study Program, Rhythm, Harmony, Improvisation

1. 서론

음악의 악보만을 보고도 그 음악의 느낌을 즉각적으로 그려 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음악을 청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음악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아치볼드 데이빗슨(Archibold Davidson) 교수는 음악대학의 이론 훈련은 수년의 청각적 시각적 훈련이 선행될 때에만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서[1] 숫자와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음악을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용음악 관련 음악대학교와 2(3)년제 실용음악과, 심지어 실용음악 관련 학원과 실용음악 특성화 교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창청음 교재들은 대부분 20-30년 전의 대학교재와 동일하거나 고전음악 위주의 텍스트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악의 제

요소들을 포괄하는 통합 이론 학습이라기보다 가창 위주의 학습에 머물러 있다. 기계적인 연습 교재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음악적 흥미를 갖게 하면서 음악의 제 요소들을 고루 학습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현재 실용음악 관련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전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재의 개발을 위해 실용음악 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부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프로그램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교신저자 : 신혜승(muse220@yit.ac.kr)

접수일 10년 09월 06일

수정일 (1차 10년 09월 23일, 2차 10년 10월 05일)

게재확정일 10년 10월 15일

2. 본론

2.1 프로그램 개발 방향

2.1.1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과 창의성

음악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의 추상적인 인지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이고 도식적인 자기표현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시창청음 교육의 핵심이다. 음악교육학자인 도널리언(Armen Donelian)은 실용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시창청음 교육을 노래와 신체 동작으로 표현하기, 프레이징 분석, 즉흥 연주하기, 편곡하기 등 다양한 음악 활동과 연계시키되 학생들에게 보다 도전적인 음악 연습을 향한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 이는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기술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적용 단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용음악과의 전공 분야는 노래와 작곡, 악기 연주, 음향 엔지니어, 미디 프로그래머, 공연 기획자 등 다양하다. 특히 음악적인 상상력과 즉흥성을 지향하는 재즈 뮤지션이나 전자적 기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게 될 실용음악 전공자들에게는 음악 요소들 간의 통합 학습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즉흥성을 개발하는 부분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리듬과 음정, 선율 뿐 아니라 보표 읽기(clef reading)와 음계, 화음 등 다양한 음악 요소의 연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3].

2.1.2 시창과 청음 부분의 통합 이론적 학습

악보를 읽고 부르기와 듣고 받아쓰기는 별개의 수업 활동이 아니라 항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은 많은 교육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4]. 현재 실용음악 관련 전공 학생들의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재는 시창과 청음의 통합 교재보다는 시창 따로 청음 따로 수업 중에 병행하는 방식이 많다[5].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설문 조사에서 분석될 내용이지만 시창과 청음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진행되는 것 보다는 교재 자체에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통합하여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음악의 제 요소를 통합한 학습은 단순히 노래하고(연주하고) 받아 적는 교육이 아니라 통합 이론적(화성학, 대위법, 형식론, 건반화성 등) 학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6]이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2 내부 환경 분석

2.2.1 교육 수요자의 학습 현황

기존의 교재와 비교하여 새로운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09년 여주대학을 비롯한 3개 대학의 신입생과 학원 수강생 등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교육 수요자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은 다음의 질문에 한 문항 당 적게는 두 가지에서 많게는 아홉 개의 항목에 표시하였다. 주요 질문 사항과 답변의 설문자료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1] 설문지 분석표

질문 내용	답변 내용
교재 사용 유무	예 (62%) 아니오(38%)
교재 만족도	만족(36%) 불만족(41%)
학습 능력 수준	만족(28%) 보통 이하(63%)
시창 및 청음 난이도 인식	청음(43%) 시창(20%) 시창 및 청음(37%)
보완할 음악 요소 (난이도 인식)	화성(35%) 선율(34%) 리듬(30%) 기보속도(3%)
즉흥연주 학습 여부	예 (8%) 아니오(82%)
음원자료 포함 여부	포함(86%) 불포함(14%)
대중음악 선곡	찬성(75%) 반대(8%) 보통(15%)
시창/청음교재의 분리/통합	분리(26%) 통합(38%) 보통(36%)

시창청음 학습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학습 능력 수준에 대해 불만족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청음 부분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기보법 등 음악 이론에 관한 기초지식의 부족과 중등교육에서의 가창 중심 교육-로 생각할 수 있다[7]. 둘째, 시창/청음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화음, 선율, 리듬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음악 능력의 인지 발달이론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써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화음 인지 능력 및 즉흥적 표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화음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시창청음 과목에서 즉흥성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봐도 이러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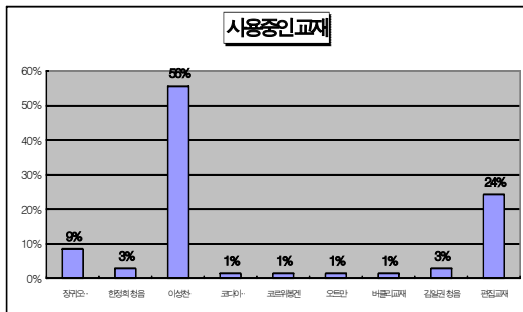
셋째, 현재 교재에 포함된 음악 대부분이 정통 클래식 음악이거나 학생들 귀에 익숙하지 않은 창작곡인 점을 감안하여 교재에 대중가요, 영화음악, 재즈, 팝송을 이용한 선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

들의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선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재의 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서 청음 훈련이 가능한 음원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공부하기 불편하다와 교재 내용이 단순하고 지루하여 흥미롭게 공부하기 어렵다는 항목에 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이는 음원자료를 교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과 온라인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았던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의 분석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무엇인가의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대학이든 학원이든 채택되는 교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교재의 채택 현황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성천의 『시창과 청음 1, 2』가 56%로 가장 많았고 편집교재가 24%라는 응답이 나온 것은 새로운 교재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이 도표를 보면 시중에 국내 저술과 번역서가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용음악 관련 대학에서 채택하는 교재가 특정 교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2.2 교재 현황

실용음악 관련 대학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창청음 교재들의 종류는 앞서 도표에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창청음 교육을 위해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들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편집교재의 원전들 중 12종을 선별하였다. 이 교재들 중 『Training The Ear』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출판되거나 유통된 것들이다.

텍스트에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들은 목차의 주제어와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3] 교재의 주요 학습 내용

교재	저자명	주요 내용	출판사명
시창과 청음 1, 2	이성천	선율, 조성, 변박자	음악예술사 (1978)
코르 위봉겐	Fritz Wuellner	음정, 음계, 선율, 조바꿈, 임시표	현대음악 출판사 (2007)
코다이 솔페지	조흥기 (편저)	33개의 2성부 선율	다라(1996)
단계적 시창	장귀오	음정, 음계, 조성, 선율	현대음악 출판사 (1999)
청음	한정희	리듬, 선율, 화성	학문사 (1993)
시창	오트만	음정, 음계, 리듬, 화음, 2성부, 보표	삼호출판사 (1989)
청음 1,2	김일권, 윤경미	리듬, 선율	현대음악 출판사 (2002)
Training the Ear	A. Donelian	음정, 음계, 화음, 선율	Advanced Music (1992)
재즈 시창청음	이우창	화성, 리듬, 음계	경희대 출판국 (2003)
시창	Samuel Adler	음고, 음정, 리듬	청우(1994)
Ear Training	Bruce Benward	음정, 리듬, 선율, 화음, cadence	Wm.C.Brown Co. (1983)
시창과 청음	이은주 (편저)	보표, 리듬, 선율, 선법	학문사 (2001)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음정과 리듬, 선율이다. 실제 수업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리듬 연습을 먼저 하건, 음정 연습을 먼저 하든 간에 서로 결합되어 선율을 노래하고 받아 적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 가지 요소들 외에 상대적으로 보표 읽기 훈련이나 화음 학습, 즉흥성 훈련 등은 비중이 약하거나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서 조사한 교육 수요자의 학습 현황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실용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저술들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 수요자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화음 인지 및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방법이며 둘째, 리듬을 중심으로 한 즉흥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두 가지 학습 방법들은 통합 이론적 학습을 지향하도록 기존의 방법론과 본 논문의 방법론을 비교하며 고찰할 것이다.

2.3 통합 이론적 학습 방법론

2.3.1 화음 학습 방법론

시창청음 뿐 아니라 음악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성 양식을 다루는 능력, 화성을 듣는 능력, 형식을 느끼는 능력의 개발이다[8]. 실제로 리듬이나 음정, 선율 등의 요소는 여러 성부를 인식하고 듣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연습 과정에 포함된다. 별개로 움직이는 성부를 듣는 능력 없이 화성을 듣는 능력이나 기능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또한 화성을 듣는 능력이나 기능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음악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창의적 표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기존 교재에서 화성 학습은 화음의 성질 구분(장, 단, 증, 감)과 2성부에서 4성부 청음, 한 조성 내에서 화음 기능 구별하기(으뜸화음-딸림화음 등)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의 악보는 7화음 학습의 한 예이다[9].



[그림 1] 악보

위의 악보에서 7화음은 3도 음정의 연쇄로 이해되며 이 연습 방법의 장점은 다양한 7화음의 조합을 이해하며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7화음의 다른 연습 방법도 가능하다. 아래 악보는 옥타브 내의 12음 위에서조를 바꾸어가며 학습하도록 고안되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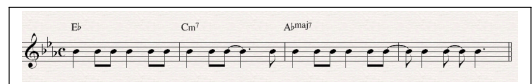


[그림 2] 악보

2장 첫 부분에서 언급한 도널리언은 7화음의 구성 음을 여러 위치에서 조합하여 시창하거나 청음을 하게 되면 화음에 대한 이론적 인식은 물론 청음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숫자로 제시하는 패턴들(1-3-5-7, 1-7-3-5, 7-3-5-1 등으로 조합하면 24개의 패턴이 나온다)을 옥타브 내의 12조에서 연습할 것을 권한다. 이처럼 화음을 분산화음의 형태로 부르거나 듣는 방법과,

자리바꿈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다양한 음정과 선율을 경험하고 여러 개의 조로 이조하며 연주해야 할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화음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11].

또 다른 방법은 화음 학습을 통해 즉흥성을 향상시키는 연습으로서, 음악학자 벤워드(Bruce Benward)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문헌의 리듬과 화성들을 제시하여 이 문헌의 선율을 먼저 맞추게 하고 여러 번 노래한 후 다시 같은 패턴 위에서 새로운 선율을 창작하게 하는 방법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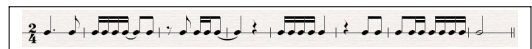


[그림 3] 악보

이 연습의 강점은 리듬과 화음만을 보고 어떤 악곡인지 생각하면서 많은 기존 문헌들을 연상하는 훈련을 한다는 점과 동일한 화음 패턴의 반복 위에 다양한 선율을 창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화음 패턴에 친숙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과 선율 즉흥연주로 창작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교사는 다양한 문헌의 화음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3.2 리듬 학습 방법론

리듬의 첫 연습 단계에서 많은 교재들은 교사가 연주하는 리듬을 듣고 바로 악보에 적지 않고 구음이나 손뼉 치기나 리듬악기로 받아서 연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아래 악보에서와 같이 단선의 리듬 악보를 주고 박자를 제시한 뒤 학생들이 시창하거나 기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4] 악보

그러나 이타카 대학의 스티븐슨(John R. Stevenson) 교수는 단선 리듬 연습과 2성부 리듬 연습을 병행하되 곳곳에 빈 칸을 만들어 학생들이 주어진 박자 내에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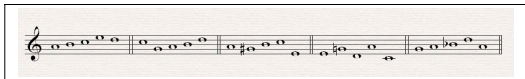
[그림 5] 악보

리듬 시창과 함께 이루어지는 리듬 즉흥 연주 학습은 마디 없이 기본 박(beat)만 제시하고 읽는 연습과 마디가 있는 규칙적인 리듬 시창을 병행한다. 즉 단위 박을 4분 음표만이 아니라 2분 음표, 8분 음표 등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어떤 악보를 주더라도 기본 박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시되는 리듬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선택적 보표 읽기와 리듬, 선율 즉흥연주 학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6] 악보

위의 악보는 원래 프랑스 국립 음악학교 리듬 연습 교재[14]에 포함된 것이다. 여기서 교사는 주어진 리듬을 먼저 읽게 하고 이 연습에 익숙해지면 음높이 없이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음자리표, 가운음자리표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보표 읽기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 선율 시창을 한다. 특이한 점은 리듬 악보에도 악상기호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기계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음악적 표현에 몰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이 리듬 위에서 몇 개의 음렬 패턴을 가지고 선율을 즉흥 연주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림 7] 악보

위의 경우처럼 5음 음계는 수많은 민요에 사용되어 부르기 쉽고 패턴도 다양하므로 권장할 만하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음계 패턴을 만들어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마디 없는 리듬 위에서 즉흥연주 하는 방법을 병행하게 되면 리듬 훈련을 기초로 보표 읽기와 음정, 음계 및 선율의 통합학습이 가능해지며 학생들은 여기서 연습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더욱 창의적 표현이 가능해진다.

여타 음악 요소 학습에서도 그렇지만 창작된 새 악보 위주로 구성하는 것 보다는 익히 알려진 문헌의 악곡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창작곡과 클래식 음악보다 대중음악 문헌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헤미올라(Hemiola) 리듬(2박과 3박의 합성 리듬)의 연습을 위해 기존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악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8] 악보

위의 악보에서와 같이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의 대응물로서 단선 악보를 제시하는 기존의 방법도 있지만 잘 알려진 레퍼토리의 예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리듬이 적용된 실제 문헌을 찾도록 과제를 주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악보는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아메리카'의 첫 부분이다.



[그림 9] 악보

원곡 악보에는 원래 6/8박자 옆에 3/4박자를 표기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론적 설명 대신 위의 악보를 먼저 제시하고 원곡을 악보와 함께 들려주면 학생들은 악곡의 리듬적 흥미는 물론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헤미올라 리듬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리듬을 이용한 즉흥연주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는 이제까지 통합 이론적 학습 방법론에 근거하여 고찰한 화음과 리듬의 학습 방법론들을 기존의 화음과 리듬 학습 방법론과 비교하여 요약한 것이다.

[표 4] 학습 방법론 비교

내용	기존의 학습 방법론	새로운 학습 방법론
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음의 성질 구분하기 (장, 단, 증, 감 3화음) - 2성부-4성부 청음 - 한 조성내에서의 화성의 기능 구분하기 - 중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화음의 구성 음을 24패턴으로 시창청음 하기 - 12개의 반음 위에서 이조하기 - 대중음악 문헌의 화성과 리듬패턴으로 즉흥연주 하기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음이나 손뼉 치기로 듣고 연주하기 - 박자표가 있는 단선 악보 시창청음 - 변박자와 혼합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 즉흥연주하기 - 악상 기호가 포함된 마디 없는 리듬 연습 - 주어진 리듬 위에서 선택적 보표 읽기 - 리듬패턴과 음렬패턴 위에서 선율 즉흥 연주하기

5. 결론

본 논문은 실용음악 전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방향은 내용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측면과 시창과 청음의 통합 이론적 학습의 측면이 되어야 함을 이론적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에 대한 학습 현황과 교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음악이론에 관한 기초지식 부족과 가창 학습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음 학습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도 화음과 리듬학습, 즉흥연주 능력이 보완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악곡의 장르를 확대해야 하며 넷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음원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현재 사용하는 교재가 특정 교재에 편중되거나 교사에 따라 다른 편집교재들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통합 이론적 학습을 지향하는 화성과 리듬의 새로운 학습 방법을 기존의 제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표 4에서 기존의 학습 방법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방법론을 비교한 바와 같이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학습 방법론에 더하여 화음 학습에 있어 24패턴의 7화음 연습과 12개의 반음 위에서의 이조 연습을 통하여 어떤 조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즉흥연주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잘 알려진 대중음악 문헌의 화성과 리듬 패턴에 의한 즉흥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리듬 학습에서는 즉흥 연주뿐만 아니라 리듬을 토대로 선택적 보표 읽기와 음계, 선율까지 단계적으로 학습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각 연습에는 즉흥 표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통합 이론적 학습 방향에 부합하는 연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창청음의 궁극적 목적은 ‘악보보고 노래하기’나 ‘음악을 듣고 적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공 능력과의 연계성과 음악 이론과의 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시창 청음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음악 전공자를 위한 시창과 청음 교육 프로그램의 차후의 개발 방향은 프로그램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선율과 리듬 뿐 아니라 셈여림, 프레이징과 템포 조절 능력, 즉흥성의 학습을 통해 음악적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공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실용음악과를 지망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악보를 읽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악보에 표기된 음들 배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 외에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시창과 청음의 유기적 학습을 지원하는 음원 제작 방법과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용희, “음악 대학의 통합 이론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제 18집, p. 45, 1998.
- [2] A. Donelian, 『Training The Ear for the Improvising Musician』, Advance Music, p. 161, 1992.
- [3] 김용희, “음악 대학의 통합 이론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제 18집, p. 9, 1998.
- [4] M. A .Gezzo, 『음악 기초이론과 함께 하는 시창청음』, 이은숙박경숙 역, 음악춘추사, p. 15, 2000,
- [5] 이미연, “예술 고등학교 청음 교육 현황과 효과적 교육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논문, p. 23, 2008.
- [6] 이찬해, 『새로운 스타일의 시창과 청음』, 음악춘추사, p. 11, 1995.
- [7] 이미연, “예술 고등학교 청음 교육 현황과 효과적 교육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논문, p. 17, 2008.
- [8] Herboly-Kocsár, 『Teaching of polyphony, Harmony and Form』, 허지연 역, 낭만음악 39호, pp. 261 ~ 294, 1998.
- [9] 사무엘 애들러, 『시창』, 손덕호 역, 청우, p. 123, 1994.
- [10] A. Donelian, 『Training The Ear for the Improvising Musician』, Advance Music, p. 75, 1992.
- [11] G.S.Karpinsky, 『Manual for Ear Training and sight singing』, W.W..Norton, pp. 144 ~ 149, 2007.
- [12] Bruce Benward, 『Sightsinging Complete』, 3rd ed., Wm..C. Brown Company, p. 139, 1980.
- [13] John R. Stevenson, 『An Integrated Approach To Sightsinging』, Prentice-Hall, p. 30, 1986.
- [14] Robert Soubeyran, 『Lectures Rythmiques』, Vol. 2, Choudens, p. 2, 1975.

신 혜 승(Hye-Seung Shin)

[정회원]



- 1990년 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이론석사)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음악학(박사 수료)
- 1981년 11월 ~ 1984년 2월 : 한국방송공사(KBS) 음악 프로듀서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간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시창청음, 영화음악